

선교지소식

2025년 1월 새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GWU
2025. 1. 28. 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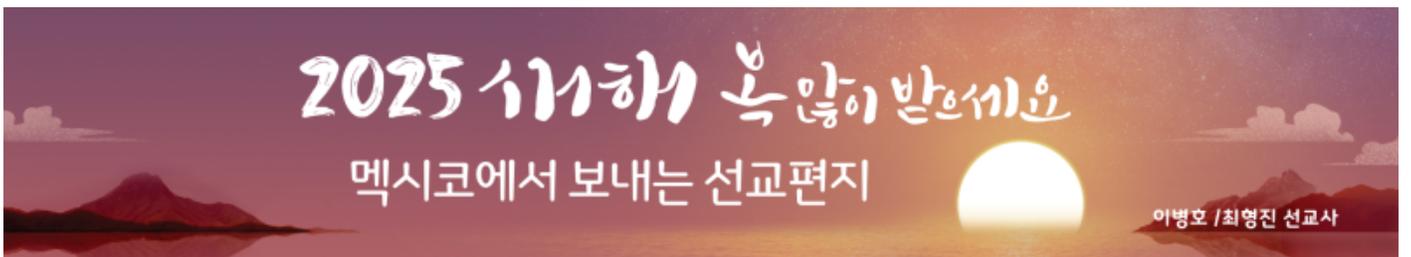
[이웃추가](#)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사랑하는 동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론 2025년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설날(구정)을 맞이하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어지럽고 힘든 시대입니다. 새해에는 모쪼록 바라시는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며, 좋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이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몇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파시피코교회 사역

지난 성탄 주일에 파시피코에는 35명이나되는 어른과 어린이가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교회에 갔을 때만 해도 4명의 성도만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니 정말 기뻐했습니다.

물론 성탄주일이라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오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주일 예배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파시피코교회의 호세 목사님과 2025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만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를 다시 주중에 하자고 권하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호세 목사님이 다시 취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그 다음 주에 호세 목사님은 다시 취직을 하였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과후 학교는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4월이 되어야 아마도 정상적인 방과후 학교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과후 학교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아직은 미약한 파시피코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얻고 강하여져서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탄행사 모습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사역을 위한 기도

지난 번에 사역지(교회, 센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한시간 가량 떨어진 지역에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센터(사택)를 짓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은퇴를 하려고 후임자를 찾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저희도 두번 정도 찾아가서 뵈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역의 방향이나, 생각이 저희와 잘 맞지 않아서 그곳의 후임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월 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생각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알맞은 교회 부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국 방문

2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국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방문의 이유는 다름이 아닌 첫째와 셋째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첫째(하연)와 셋째(하은)이는 선교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교관 사용 만료일이 3월 15일이라 저희가 가서 월세라도 구해주고 생활에 필요한 집기들도 모두 구해줘야 합니다.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아이들이 원하는 곳의 1순위는 교회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활동하는 일이 많아서 밤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기쁘게 교회를 섬기고, 또 그런 이유로 교회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좋은 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섬기는 교회는 성북구 종암동에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이나, 4호선을 따라 교회 다니기에 용의하고 큰 아이 회사(시청방면)와 셋째 학교(노원방면) 쪽으로도 다니기 괜찮고 안전한 곳의 집이 잘 구해지기를, 그리고 집을 구할 재정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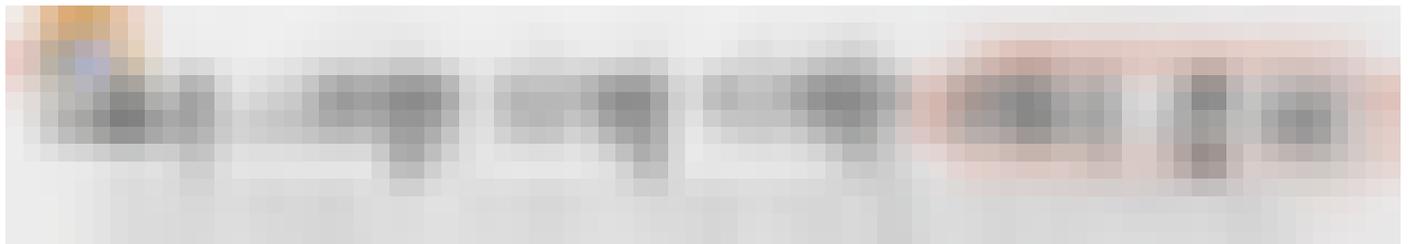


한글 학교

한글학교 겨울 학기 특별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급반 4명과 고급반 3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한글학교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이 더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설교와 한국음식 만들기

2월 2일과 2월 9일에 각기 다른 현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설교하기에는 부족한 실력이지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현지 언어로 설교하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아내 최선교사는 2월 9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곳 사람들이 잡채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잡채를 만들려고 합니다. 잘 가르쳐서 현지인들이 잡채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도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내 최선교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주어진 시간을 잘 소화해 내서 이것 또한 하나의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가족 소식

둘째(하진)는 이번 학기에 다시 복학을 하게 됩니다.

방학 기간 동안 이번 학기의 등록금을 열심히 모아 스스로 등록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막내(하민)는 학교 생활을 즐거워하지만 스트레스 또한 많은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공동체 생활을 하려니 여러가지 소소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대인관계도 잘 만들어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고, 또한 좋은 믿음의 친구가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마지막 시대의 선교 사역에 동참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시키며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https://go.missionfund.org/support8>